‘방탄’ 신곡 ‘MIC Drop’, 500여國 음악 차트 점령

슈퍼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2017년 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최고 권위의 빌보드

美·英·獨 휩쓸고 亞·유럽으로
리믹스 발표후 세계적 신드롬 이어져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상 수상으로 시작된 이들의 돌풍은 12월 전 세계 음악 차트와 음악상 시상식을 휩쓸며 거부할 수 없는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다.

4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신곡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가 미국·영국·독일 차트를 휩쓴 데 이어 스웨덴·포르투갈·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북미와 유럽, 아시아 50여 개국의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3일 호주 음악 차트인 ‘아리아 차트’(ARIA Charts)의 싱글즈 부문 50위, 디지털 트랙 부문 10위로 진입했다. 뉴질랜드의 ‘엔지뮤직 차트’(NZ Music Charts)의 히트시커(Heatseeker) 싱글즈 부문에선 1위로 치달았다.

앞서 1일 스웨덴 음악 차트의 히트시커에서 8위, 지난달 26일 포르투갈 톱50의 싱글즈에서 46위, 아일랜드 차트 싱글즈 톱100에서는 98위, 싱가포르 톱100에서 90위에 올랐다. 미국 등 메이저 시장에서 촉발된 인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돼 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마이크 드롭 리믹스는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와 신예 래퍼 디자이너(Designer)가 참여한 곡이다. 지난 27일 미국 NBC 방송의 간판 토크쇼 ‘엘런 디제네러스쇼’를 통해 화려한 댄스가 공개되며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미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 수는 4300만 뷰를 돌파했다.

연말 시상식도 온통 방탄소년단의 물결이다. 이들은 2일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베스트송’ 등 5관왕을 차지했다. ‘봄날’로 올해의 베스트송을 받았고, ‘올해의 톱10’ 수상자로 호명됐다.

지난 1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7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에서는 3개의 대상 중 하나인 ‘올해의 가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8~1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3 윙스 투어 더 파이널’ 콘서트로 올해 활동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 만남 자체가 그뤠잇, 정규편성하길 잘했다

김생민-송은이-김숙의 만남 자체가 ‘그뤠잇’이다. 정규 편성 이후 김생민-송은이-김숙의 하모니는 세 배가 됐다. 서로를 향한 디스 조차 밉지 않고 훈훈하기만 하다. ‘김생민의 영수증’의 성공 이유는 바로 김생민-송은이-김숙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웃음 주는 절묘한 케미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한 회였다.

3일 오전 흥청망청 돈 쓰는 자들을 위한 저축갱생 프로젝트 통장요정 김생민의 극약처방 경제상담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 정규 2회가 방송됐다.

2회는 2대 공감요정으로 권혁수가 등장해 “한강 뷰가 보이는 빌딩을 가질 수 있을까요?”라는 통큰 소망을 내놓았다. 권혁수의 통 큰 소망에 김생민은 “한강을 보기 위해서는 벽에 붙어서 창 밖을 봐야 한다”라면서도 자신에게 없는 개인기를 대방출하자 “개인기는 큰 소득 부럽다 그뤠잇”이라며 이런 능력이 늘어나면 한강 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그러나 권혁수의 영수증 내역은 통장요정 김생민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영수증 항목을 세세히 분석하던 김생민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한 항목을 발견한 것. 권혁수가 브라질리언 왁싱에 9만원을 지출했던 것이다. 이에 김생민은 “권혁수 씨는 지금 가랑이를 관리 하는 건가요?”라고 되물으며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권혁수는 관리 전과 후의 발걸음을 비교해 보이며 합리적인 소비를 강조했지만 김생민은 “저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9만원이 들어서 싫어요”라며 시종일관 통장요정다운 면모를 보이며 권혁수와 웃음 터지는 취향 밀당을 이어갔다.

그런가 하면 영수증 최초로 직업군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기 위해 영수증을 의뢰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집세와 관리비가 합쳐서 1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밝혀 김생민의 부러움을 한 가득 샀다. 그러나 군인 답지 않은 절제되지 못한 소비 릴레이에 ‘스튜핏’이 쏟아졌다. 양말 건조대 구입에 지출을 하자 김생민은 “마를 것은 언젠가 마릅니다”라며 마를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한 핫도그를 대량 구매하자 김생민이 핫도그와 조국은 단어가 붙지 않는다고 말하자 권혁수는 “처음 알았어요.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이라며 당황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게임 아이템 결제 내역에 모두들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가 하면, 김생민은 혀클리너 항목을 보곤 “절실함이 없으시다”며 훈련 상황 소리를 내며 혀를 닦는 시늉을 보여 훈련과 혀클리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 김생민은 고급 섬유유연제, 칫솔 살균기, 차의 실내등, 차 인테리어 물품 등 향기, 불빛, 악세서리등 계속해서 훈련과는 맞지 않는 내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자 거침없이 ‘조잡 스튜핏’을 던지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에 김생민은 “너무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차를 팔고 내년 5월부터 흑자 인생을 시작하자”며 아울러 “삼국지,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태백산맥 등을 읽어라. 인터넷 쇼핑이나 게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책을 읽으시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출장영수증’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소비요정 김숙이었다. 김숙은 통장요정 김생민-텀블러 요정 송은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면서 자신의 집이 ‘샵세권’임을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김숙은 출장영수증 게스트로서 “주차난이 너무 심해 주차가 10대 정도 가능한 마당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며 고민을 밝혔다.

그러나 현관에서부터 신발장에 가득 찬 새 신발들과 지나친 운동화 구매에 스튜핏 스티커가 붙여졌다. 다음 타자는 홍옥이었다. 사과를 좋아하는 언니의 사과 과수원 구입과 판매 스토리가 이어지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땅을 판 언니에게도 어김없이 ‘스튜핏’이 이어졌다. 이어 김숙은 자신이 직접 식탁을 리폼했다며 그뤠잇 스티커를 기대했다. 하지만 김생민은 “인천으로 목공 일을 배우러 다녔으며, 팔이 짝짝이가 됐다”고 하자 김숙은 “3:1로 싸우자는 거냐 나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김숙은 비장의 물건을 내놓았다. 바로 ‘탄산수 제조기’ 김숙은 “우리 집에는 정수기가 없어. 대신 탄산수 제조기가 있어”라고 말하자 김생민은 안 봐도 스튜핏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막상 물을 한컵 먹자 김생민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어 송은이에게 “누나 근데 이거 맛있다”라며 탄산수 중독을 멀리하는 행동을 하며 스튜핏을 떼어줘 웃음을 폭발시켰다.

이어 또한 문제의 어린 왕자 전등을 발견한 출장 감식반은 임시로 다른 조광기를 넣은 어린 왕자 조명을 보며 ‘웨이터 어린 왕자’라며 터지는 웃음을 금치 못했다. 이외에도 각양각색의 조명기기들이 공개되며 김숙의 조명사랑을 드러냈다.

김생민이 수 백장의 LP판, 수 십권의 책 등이 그뤠잇을 예상케 했으나 출처를 모르는 책, 들러붙어 음악을 들을 수 없는 LP판등의 실상으로 인해 스튜핏이 이어졌다. 그러나, 스튜핏 스티커로 가득 찬 후 의외의 물건에서 그뤠잇이 탄생됐다. 바로 두루마리 휴지였다. 김숙은 “휴지 공장에 촬영 차 갔다가 휴지를 만들고 남은 것들을 갖고 가라고 해서 갖고 와서 후배들에 나눠줬다”며 두루마리 휴지가 몇 개 더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생민은 “알뜰 살뜰 그뤠잇”을 선사하며 김숙의 스튜핏 바다에서 유일무이한 그뤠잇을 발견하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음 지었다.

각종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에서는 “통장요정...무서운 요정”, “나도 카드 내역서 보내고 싶음. 절약한다고 하는데 돈이 줄줄 샌다”, “혁수 오빠랑 소비요정님 죽이 척척 맞음...님 웃겨”, “절약과 소비가 함께 있어서 더 와 닿아요”, “김숙 집 완전 신세계” 등 호평을 이어갔다.

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김생민의 영수증’은 전국 기준 4.7% 시청률을 기록했다.

영화 ‘비밥바룰라’, 유머 코드·감동까지 장착…내년 1월 개봉

새해 첫 휴먼 코미디 ‘비밥바룰라’가 ‘국제시장’, ‘수상한 그녀’, ‘써니’ 등 사랑을 받은 코믹 휴먼 드라마 계보를 이을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네 아버지들이 가슴 속에 담아둔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리얼 욜로 라이프를 그린 휴먼 코미디 ‘비밥바룰라’가 ‘국제시장’, ‘수상한 그녀’, ‘써니’ 등 전 세대 관객들을 사로잡은 코믹 휴먼 드라마 계보를 이을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제시장’은 1950년대 한국전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관통한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덕수(황정민 분)와 영자(김윤진 분), 달구(오달수 분), 끝순(김슬기 분), 덕수부(정진영 분), 덕수모(장영남 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천만 영화 대열에 합류하며 웃음과 감동을 모두 갖춘 휴먼 드라마로 사랑 받았다.

우연히 ‘청춘 사진관’에 갔다가 스무 살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간 욕쟁이 칠순 할매 말순(나문희 분)의 이야기를 그린 ‘수상한 그녀’는 인생의 청춘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스토리와 나문희, 심은경 등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가 만들어 낸 독특한 캐릭터와 유머로 화제를 모았다.

잘 나가는 남편과 예쁜 자녀를 둔 중년의 나미(유호정 분)가 옛 친구와 25년 만에 재회하면서 고교 시절 결성했던 칠공주 ‘써니’의 멤버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써니’ 역시 그 시절 눈부신 우정을 간직하고 있을 관객들의 추억을 자극해 전 연령층의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소재와 웃음 코드, 감동을 겸비한 따뜻한 드라마로 흥행에 성공한 코믹 휴먼 드라마들의 계보를 이을 작품으로 ‘비밥바룰라’가 티저 포스터 공개 직후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비밥바룰라’는 가슴 속에 담아둔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로 결심한 네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최고령 케미를 발산한다. 또한 관객들 저마다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들 따뜻한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밥바룰라’는 내년 1월 개봉할 예정이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음력 10월 18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쥐띠 36년생 긍정적으로 .48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0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2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4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소띠 37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9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61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3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5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호랑이띠 38년생 외출을 삼가라.5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인다. 62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4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6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토끼띠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용띠 40년생 .52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뱀띠 41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3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5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9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말띠 42년생 구설수에 조심하라.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부드럽게 처리하라.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90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양띠 43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5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7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9년생 기다림을 알아라.91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원숭이띠 32년생 베푸는 마음을 길러라.4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6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닭띠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개띠 34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46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58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0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2년생 꿈을 접지마라.

▶돼지띠 35년생 털어낼 것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1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